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 고훈봉 · 임현덕 · 이재일

1. 서론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보안상 이유로 사설 클라우드(Public Cloud)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설 클라우드 보다는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한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Smart Mobile Office, 이하 “SMO”)가 킬러 서비스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서비스로 SMO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MO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형 고성능 네트워크 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환경오염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의 해법으로 스마트워크가 제시되고 있는데 SMO는 기존의 재택근무를 넘어 스마트워크센터와 함께 스마트워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업종별로 그룹웨어, 현장관리 등에 SMO를 적용하여 고객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SMO를 도입하고 있는 확산 초기단계이다. 중소기업은 향후 가장 시급한 신정보화 분야로 SMO를 1순위로 꼽았으나, 예산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SMO의 조기도입·확산을 통해 스

마트 모바일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환경에서 국내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 정책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SMO 현황 및 문제점

2.1 해외 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SMO 도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써 다양한 신규 통신 서비스 및 SMO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업자인 Verizon은 LTE(Long Term Evolution), 유무선 결합상품 등 원활한 SMO 활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AT&T는 기업용 음성/영상/웹 컨퍼런싱 서비스 사업자인 Interwise를 인수하여 UC(Unified Commun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BT는 유럽 최초로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B2C 대상 서비스에서 B2B 대상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사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익스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T-Mobile은 블랙베리와 연계하여 무선망과 유선망간의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Wi-Fi Calling for Business”를 개시하였으며 Advanced Solution은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 솔루션까지 모바일에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일본의 KDDI는 자사가 보유한 유무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합하는 FMC 전략을 추진 중이며 Softbank는 Microsoft와 협력하여 개인, 그룹, 조직 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U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선도 기업들은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의 그룹웨어, 고객관리, 현장관리 등에 SMO를 적용하여 고객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미국의 시스코는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통신 환경을 각국 지사에 구축하여 연간 1억 달러에 이르는 출장비 절감 효과와 함께 국외 출장이 빈번한 임원의 사무실 자리를 없애는 실험도 시도 중에 있다. 미국의 GE Money는 직원들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업무 할당·관리·결과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고객 접점에서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여 고객 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itigroup은 스마트폰을 통해 IT 관리자들이 원격지에서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장애발생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Reed는 MS 오피스, 오라클 고객관리툴 등 50여개의 애플리케이션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연간 20%의 IT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서버당 평균 3배 이상의 사용률 증가로 2,500톤의 탄소 절감효과를 창출하였다. 일본의 T&D컨퍼는 영업사원이 외부에서 고객과 면담한 결과를 즉시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사에 송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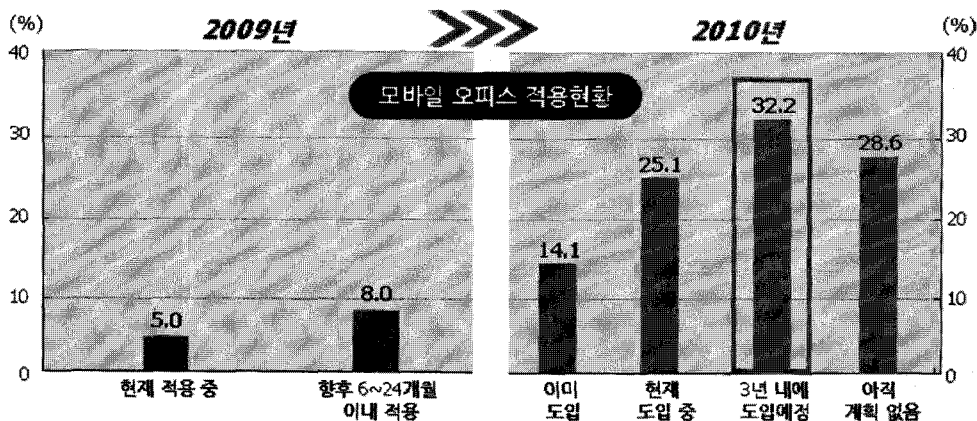
2.2 국내 현황

국내에서도 최근 SMO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통사를 중심으로 SMO 확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인기에도 힘입어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영진 대상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 조사 결과, 그림 1에서처럼 '09년에는 5.0%의 SMO 적용에 그쳤으나, '10년에는 39.2%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 내에 32.2%의 기업이 SMO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실시간 업무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이통사는 B2B 시장의 핵심 영역인 SMO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KT는 '10년 말 기준으로 11개 분야에서 570여개 업체에 FMC와 전자우편, 메신저, 결제 등의 기능을 갖춘 SMO를 결합한 서비스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SKT는 580여개 기업에 S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SMO 솔루션은 대부분 그룹웨어의 모바일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등 기간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도 일부 제공하고 있다. SMO 솔루션은 전용 솔루션보다는 IBM, 오라클 등에서 기존의 솔루션에 대한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SMO가 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SMO가 확산되는 초기단계이다. 포스코는 생산공장 등에 통신망과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 등 사무실 업무뿐만 아니라 제품의 출하, 판매, 생산 등 현장 업무까지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삼성SDS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로 이메일, 결제, 일정관리, 직원조회 등이 가능한 SMO를 구현하였다. 실시간 Push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폰으로 고객 상담 채널에 상시 접근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 2009년은 삼성SDS 내부 분석자료, 2010년은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회원(477명 대상) 조사
그림 1 국내 SMO 적용현황

다. 도시철도공사는 토목, 건축, 설비, 정보통신, 전기 등 9개 분야에 모바일로 통합 처리 가능한 지하철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현장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 단축(1시간→28분) 및 운용비용 절감(향후 5년간 284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도 SMO를 도입중이나 해킹 등 보안문제가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도난·분실, 해킹 등으로 기밀 정보 유출에 더 민감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상반되게 중소기업은 SMO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도입률이 대기업(16.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신정보화 분야 인지도 부분에서 SMO가 74.4%로 가장 높고 시급한 도입 분야로 모바일 오피스를 꼽았으나, SMO 등 신정보화 추진에 예산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ERP,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기본적인 IT 투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SMO 등과 같은 신정보화 영역에는 신규 투자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3 SMO 발전전망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유·무선 인터넷 융합 기술 진보에 발맞추어 기업 경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SMO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MO는 이통사의 B2C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B2B 시장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SMO 장비 및 S/W 업체에게는 신규 시장 확대의 기회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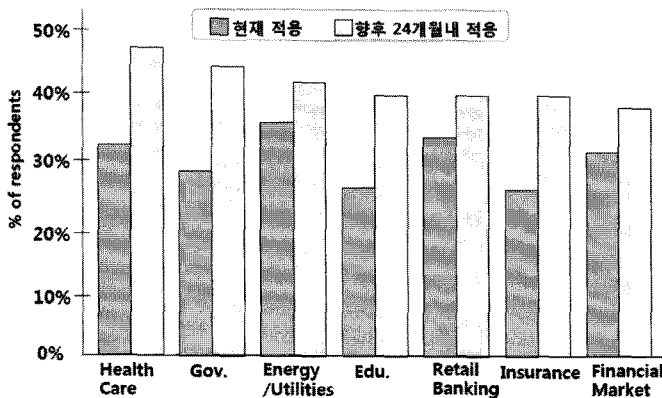
입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Sullivan)에 의하면 미국 내 SMO의 수익 규모는 '09년 17억 달러에서 '15년 680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MO 시장은 '09년 2.9조원에서 '14년에는 5.9조원으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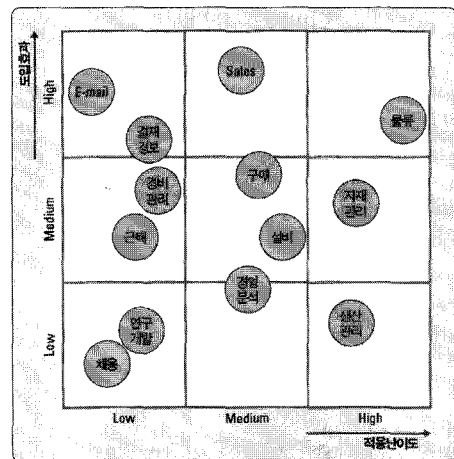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세계 기업은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SMO를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해외는 에너지·유틸리티, 소매금융(Retail Banking) 순으로 SMO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헬스케어 및 정부 순으로 적용을 고려 중에 있다. 국내는 금융·철강·조선 등 현장·고객접점 업종에 SMO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 계열사에 도입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SMO는 생산·물류·영업·업무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그림 2에서처럼 SMO 도입 초기에는 전자메일, 결재 등에 SMO를 적용하나 기업 혁신 및 차별화를 위해 영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2.4 SMO 활성화 정책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면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도구로서 SMO를 중소기업에 도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역량 부족으로 적극적인 SMO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SMO를



해외 SMO 적용 현황 및 계획(Datamonitor, '09.6)



SMO 기술 난이도 대비 효과성(오라클 '10.6)

그림 2 해외 SMO 적용률 및 기술 난이도 대비 효과성

도입할 수 있도록 SMO 구축 지원, 기술·정책 개발, 교육·수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SMO 확산 시 산발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SMO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수요자 및 공급자를 연계한 생태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SMO 관련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SMO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SMO 확산 초기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조기 확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3. SMO 활성화 방안

3.1 중소기업 SMO 구축 시범사업 추진

초기 SMO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있는 업종을 발굴하여 SMO를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 SMO 도입 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업무 단위를 선정하여 매일, 결제 등의 SMO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무에 특화된 Customized SMO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SMO 이용자의 통신비용, 속도 등을 고려하여 SMO 구축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비스(FMC, FMS 등)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구동이 가능한 웹 기반의 SMO를 개발하고, 특정 스마트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도록 플러그인(Plug-in)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HTML5 등을 활용하여 SMO 설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SMO를 도입한 기업들 다수가 앱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앱은 웹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스마트폰 플랫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따라 앱을 만들어야 하는 단점을 해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웹방식 SMO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플랫폼에 중

속적인 네이티브 시스템은 빠른 성능, 화려한 UI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지보수 및 관리, 폐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MO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웹 혹은 앱 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SMO 구축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SMO의 원활한 도입에 필요한 노하우를 담은 SMO 구축 지침서 및 이용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유사 중소기업에 SMO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0년 정부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CATV·인터넷 설치 등 현장출동업무 지원이 가능한 방송통신 분야 및 프로젝트 관리업무 지원이 가능한 제조업 분야에 SMO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표 1과 같다.

3.2 중소기업 SMO 확산 지원

단발적이고 분산된 SMO 지원 방식을 지양하여야 하며, SMO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수요자 및 공급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SMO 서비스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SMO 이용 촉진은 기업경쟁력을 강화 시켜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통사, 솔루션업체, 중소기업 등의 SMO 가치사슬 주체가 협력하여 SMO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SMO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통사, 솔루션업체는 중소기업 업무에 특화된 SMO 솔루션 및 FMC, SMO 플랫폼 등의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자사에 최적화된 SMO 도입 추가비용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SMO가 도입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제조·사회복지·건설·교육·의료·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SMO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SMO 도입 시, 기업에서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에서 고급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SMO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SMO 국내외 동향, 도입사례, 구축업체

표 1 2010년 SMO 구축 시범사업 주요내용

구분	현장작업지원 SMO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형 SMO 솔루션 개발
수행기관	한강시스템	삼양데이터시스템
적용기반	모바일 웹 방식	모바일 웹 방식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처리 결과 입력·조회, 위치정보 조회 등 현장출동업무(CATV·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에 특화된 SMO 서비스 ○ SMO 솔루션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메일, 일정관리, 주소록, 게시판 등 그룹웨어 서비스 ○ RFID 제조업에 특화된 프로젝트관리 서비스 ○ SMO 솔루션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솔루션· 장비 일람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SMO 구축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 분석, 도입전략 수립, ROI 산출 등 SMO 도입에 관한 종합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SMO 업계 종사자,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SMO 관련 기초교육, 실습교육, 심화교육 등 단계별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등에 SMO 도입 촉진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3.3 모바일 생산성 지수 개발·도입

SMO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도입 전·후의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모바일 적용 기업의 경영 자원 효율화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모바일 생산성 지수(Mobile Productivity Index, 이하 “MPI”)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모바일 도입 방향성 제시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전략적 가치, 노동 생산성, 위험 관리 등의 항목으로 기업간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개발된 지수를 적용할 표본 기업을 선발하여 주기적으로 모바일 생산성 평가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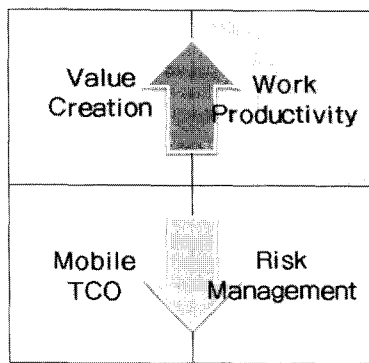
할 예정이다.

SMO를 도입한 기업에 산업분야별로 MPI를 측정하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SMO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MPI를 기반으로 생산성 변화 정도를 추적 관리함으로써 기업 담당자에게 SMO 개선·확장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SMO 도입 기업의 MPI를 측정하여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시상하는 모바일 생산성 어워드를 개최할 것이다.

3.4 편리하고 안전한 SMO 2.0 기술개발

그림 4,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룹웨어를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SMO 1.0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과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다자간 협업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SMO 2.0 기술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및 관련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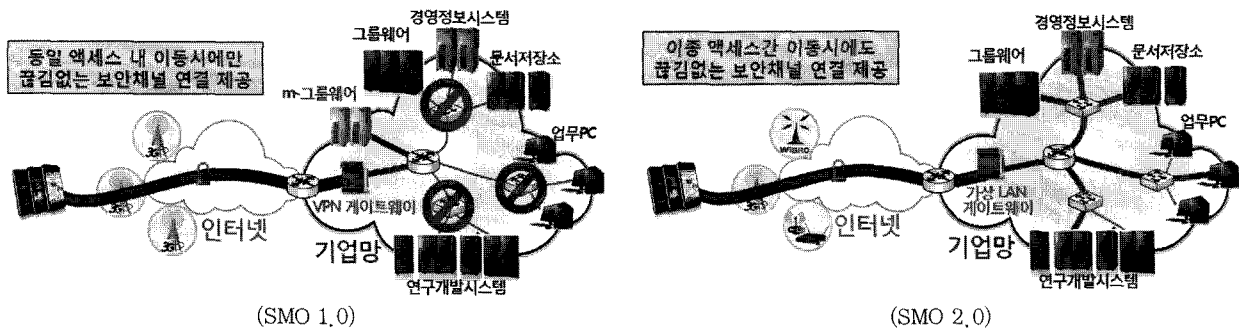
이용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 SMO 2.0 실현을 위한 모바일 가상 LAN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원격근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화통신(정보 내용을 감추기 위하여 전송 신호를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통신) 기술 및 보안채널 제어 기술, 영상회의, 사내방송 등의 지원을 위한 멀티캐스트 기술, 상용화를 위한 모바일 가상 LAN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술, 바



- ▷ 지수 최대화 요소
 - Value Creation(가치 창조), Work Productivity(업무 생산성)
- ▷ 지수 최소화 요소
 - Mobile TCO(모바일 총소유비용), Risk Management(위험관리)

출처 : KPC('10.11)

그림 3 MPI 개요



출처 : ETRI('10.11)

그림 4 SMO 1.0과 SMO 2.0 개념도

표 2 SMO 1.0과 SMO 2.0 비교표

구분	SMO 1.0	SMO 2.0
특징	단말을 통한 서버 접속(Access) 언제 + 어디서나 (단, 위치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	단말을 통한 기업망 연결(Connection) 언제 + 어디서나 + 어떤 일이든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
서비스 환경	모바일웹 기반	멀티미디어/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업무 특성	개별적인 단독 업무 수행	다자간 협업을 통한 업무 수행
서비스 연속성	동종망의 셀간 핸드오버 보장	이종망간 서비스 연속성 보장
보안성	모바일 단말 보안 강화	가상 LAN 전체 보안 강화

출처 : ETRI('10.11)

이러스 유포 방지를 위한 탐지·차단 기술 및 DDoS 등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보안 협업관계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IT 투자비용 절감 및 전산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SMO 기술연구를 추진하여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인 구동이 어렵거나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의 SMO 활용을 위해 SMO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그린 보안 플랫폼 기술 및 악성 트래픽으로부터의 스마트폰 사용자·무선망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무선 인프라의 확산으로 모바일 업무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SMO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외 SMO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SMO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MO 활성화 정책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SMO 확산방안도 소개하였다. SMO 도입·확산은 원격지 근무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 견인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탄력적인 근무환경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언제·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SMO 서비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킹, 모바일 단말기 분실 등 보안문제가 SMO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유선기반 근무환경과 비교하여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SMO가 현재의 그룹웨어 수준을 넘어 SCM, CRM, 설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0.11.
- [2] 모바일 빅뱅과 기업경영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10.06
- [3] 신정보화 수준 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자신문, '10.06
- [4] The New Mobile Office Market, Frost&Sullivan, '10.04
- [5] 모바일 오피스 구축의 경제적 효과(도시철도공사 사례 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 '10.03
- [6] 오라클의 모바일 전략 및 Enterprise Mobile Platform, 오라클, '10.08
- [7] KPC 모바일 생산성 향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10.07
- [8] 모바일 오피스 확산 데스크톱 가상화 더욱 주목, 디지털데일리 '10.11



고 현봉

2001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사
2003 아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2005 아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수료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 클라우드
서비스TFT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유비쿼터스,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
및 정보보호
E-mail : gohb@kisa.or.kr



임 현덕

2002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004 KAIST 전산학과 석사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 클라우드
서비스TFT 팀장
관심분야 : 유비쿼터스,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
및 정보보호
E-mail : yimhd@kisa.or.kr



이 재 일

1986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8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석사
2006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장
관심분야 : 인터넷, 정보보호
E-mail : jilce@kisa.or.kr